

# 그리스도의교회 커닝햄선교회의 직접후원선교: 그리스도의교회의 재건에서 자립까지(1945-1997)

백종구

## 목 차


- I. 서론
- II. 커닝햄선교회의 직접후원선교(1945-1952)
- III. 그리스도의교회 개교회의 자립(1952-1997)
- IV. 결론



**백종구** 박사는 네덜란드 레이던대학교(B.A., Th.M., Ph.D.)를 졸업하고, 서울기독교대학교에서 가르쳤다(2007-2019).

## ■ 논문 초록 ■

미국 그리스도의교회 독립선교사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1864-1936)이 도쿄(東京)에서 운영한 요츠야선교회(四谷宣教會)는 그리스도의교회 직접후원선교(혹은 신앙선교)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요츠야선교회가 수행한 직접후원선교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전과 후의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요츠야선교회의 후신인 커닝햄선교회의 선교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교회 밖 일본 사회의 상황과 커닝햄선교회의 재정정책의 차이에 주목하여 연구 시기를 연합군 점령 시기와 이후 시기로 구분할 것이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 연합군 점령 시기(1945-1952) 그리스도의교회의 재건과 개척, 친교, 교육과 전도, 성장에 대하여 서술하고, 3장에서 연합군 점령 이후 시기(1952-1997) 선교사의 선교비 지원 방식과 개교회의 자립 과정, 친교, 교육과 전도, 성장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합군 점령 시기 일본 사회의 친-기독교적 상황과 그리스도의교회 커닝햄선교회 선교사들의 교회 재건과 개척, 주일모임, 성경공부-복음전도집회가 교회성장을 이끌었다. 또 연합군 점령 종료 후 기독교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도입한 직접후원선교체제(선교사의 생계비 지원과 개교회의 법인화), 성경공부-복음전도집회-청년·성서캠프를 통한 전도와 교회 개척, 주일모임-5째주일동원-전국대회를 통한 친교가 외래 종교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일본에 그리스도의교회(유약기)를 성장시키고 정착시켰다. 

주제어

직접후원선교, 교회자립, 기독교친교, 복음전도, 교회성장

## I. 서론

미국 그리스도의교회 독립선교사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1864-1936)이 1902년부터 도쿄(東京)에서 운영한 요츠야선교회(四谷宣教會)는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직접후원선교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sup>1)</sup> 요츠야선교회가 수행한 직접후원선교의 역사에 대한 첫 연구는 “윌리엄 D. 커닝햄의 일본 선교와 요시야선교회: 직접후원선교의 개척”인데, 이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sup>2)</sup> 본 연구는 언급한 선행 연구의 연장선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요츠야선교회의 후신인 그리스도의교회(유약기) 커닝햄선교회(이하 커닝햄선교회)의 직접후원선교의 역사를 재구성한다.<sup>3)</sup>

본 연구는 교회 밖 일본 사회의 상황과 커닝햄선교회의 재정정책의 차이에 주목하여 연구 시기를 연합군 점령 시기와 이후 시기로 구분할 것이

---

1) David Filbeck, *The First Fifty Years: A Brief History of The Direct-Support Missionary Movement*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mpany, 1980), 136-54; D. Newell Williams, Douglas A. Foster, and Paul M. Blowers, ed., *The Stone-Campbell Movement: A Global History* (St. Louis: Chalice Press, 2013), 122-25.

일본에서 그리스도의교회와 연결된 선교회는 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Churches of Christ Mission), 요츠야선교회, 매케일렙(John Moody McCaleb, 1861-1953)이 주도한 선교그룹이 있다. 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는 미국 해외그리스도인선교회(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1875년 설립)가 1883년부터 일본에 파견한 선교사들이 세운 재일선교단체이다. 매케일렙은 1893년 애즈빌(Wilson Kendrick Azbill, 1848-1929)의 재일선교팀과 결별한 이후 직접후원선교방식을 택해 선교사업을 시작했다.

2) 백종구, “윌리엄 D. 커닝햄의 일본 선교와 요시야선교회: 직접후원선교의 개척,” 『선교와 신학』 39 (2016): 153-77.

3) “What Is The Cunningham Mission,” TC, Spring 1956, 55-4, 1. 커닝햄 사망 후 요츠야선교회는 커닝햄선교회로 불렸다.

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 연합군 점령 시기(1945-1952) 그리스도의교회의 재건과 개척, 친교, 교육과 전도, 성장에 대하여, 3장에서 연합군 점령 이후 시기(1952-1997) 선교사의 선교비 지원 방식과 개교회의 자립 과정, 친교, 교육과 전도, 성장에 대하여 서술할 것이다.

## II. 커닝햄선교회의 직접후원선교(1945-1952)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1945년 10월 2일부터 연합군사령부에 의해 군정이 시작되었다.<sup>4)</sup> 연합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이하 총사령부)는 ‘합중국 전후대일정책’(1945. 9. 6.)에 근거하여 정치·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는 규약「인권지령」과 국가신도, 신사신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철폐하는 규약인「신도지령」을 발표했다. 또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재벌 해체, 농지 해방, 노동자의 권리 보장, 군국주의교육 부정 등의 조치를 통해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추진해 나갔다. 이러한 일련의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 조치들은 1946년 11월 일본국헌법의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연합군정 시기(1945. 10. 2-1952. 4. 28.) 총사령부의 종교정책은 명목상 정교분리로 특정 종교(기독교 포함)에 대한 배려가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럼에도 실제로 총사령부는 기독교 전도에 호의적이었고 특히 성공회 교인이었던 연합군총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는 적극적으로 기독교 선교를 지원하였다. 총사령부의 호의적인 분위기와 실제적 지원으로 기독교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시각은 긍정적이었고 이런 환경에서 연합군정 시기 기독교회는 빠르게 재건되고 개척되었다.

4) 中村敏, 『日本キリスト教宣敎史』, 박창수 역, 『일본 기독교 선교의 역사』 (서울: 흥성사, 2016), 282-84, 288-96.

## A. 선교사들의 입국과 교회의 재건과 개혁

총사령부의 종교분야 담당부서인 민간정보교육국이 1946년 4월 외국인 선교사들의 입국을 허가하기 시작하자, 전쟁 전 일본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과 새로운 선교사들이 대거 입국하였다.<sup>5)</sup> 1947년 그리스도의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오웬 스틸 부부(Owen Still) 선교사를 시작으로 커닝햄 선교사의 부인, 에밀리 B. 보이드(Emily Blackstone Boyd, 이하에서 커닝햄 부인)가 입국했다. 이어서 커닝햄 부인이 미국에서 동원한 새로운 선교사들, 즉 사무엘 선더스(Samuel Saunders) 부부 선교사와 해럴드 심스(Harold Sims) 부부 선교사가 입국하고, 1948년 앤드류 패튼(Andrew Patten) 선교사가 도쿄에 도착했다. 1950년 버트레이(Stanley Buttray) 부부 선교사가 입국했다.

그리스도의교회 커닝햄선교회 임원진은 처음에 커닝햄 부인 선교사, 패튼, 그리고 스틸 부부, 선더스 부부, 심스 부부 선교사 8명으로 구성되었다.<sup>6)</sup> 회장직은 처음에 커닝햄 부인이 맡았고 1953년 12월 커닝햄 부인의 사망 이후부터 1997년까지 심스 선교사가 맡았다. 제2차 세계대전 전 요츠야선교회가 개척한 12개 교회(10개 일본인 교회, 2개 한국인 교회)는 일본기독교단으로 편입되었다. 전쟁 중 2개 교회는 철거되고, 7개 교회는 공습으로 불타 없어지고, 다른 2개 교회는 매각되어 12개 교회 중 유일하게 생존한 교회는 세타가야(世田谷) 교회뿐 이었다.<sup>7)</sup> 세계대전 후 입국한 선교사들은 커닝햄선교회를 재건하고, 일본기독교단에 편입된 교회들을 독립시키

5) 위의 책, 307-11. 1946년 8월까지 가톨릭교 64명 기독교 46명의 선교사가 입국수속을 마쳤다.

6) TC, March-April 1950, 46-2, 2. 이후 스틸 부부가 귀국하고 버트레이 부부가 임원이 되었다.

7) 철거된 2개 교회는 요츠야(四谷) 교회와 하노조노(花園) 교회. 소각된 7개 교회는 요초마치(余丁町), 오구(尾久), 미카와시마(三河島), 나카노(中野), 사쿠라야마(桜山), 카미오치아이(上落合), 시노가와(伊東) 교회. 매각된 2개 교회는 사루에(猿江)교회와 메구로(目黒)교회. Tokyo Christian(이하 TC), November-December 1953, 52-6, 2.

고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였다.

세계대전 종료 이후 1950년 1월 9일 현재 커닝햄선교회 소속 그리스도의교회 7개 교회가 재건되고 4개 교회가 개척되었다.<sup>8)</sup> 1947년 4월 세타가야 교회, 9월 와카바(若葉) 교회,<sup>9)</sup> 1948년 3월 요초마치(余丁町) 교회가 재건되어 예배가 재개되었다. 1949년부터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니시-하치오지(西八王子) 교회는 봄에, 아비고(我孫子) 교회는 여름에, 시부야(渋谷) 교회와 타카사키(高崎) 교회는 12월에 개척되었다. 언급한 4개의 개척교회 중 3개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시골이었는데 이것은 커닝햄선교회의 선교사역이 도교를 넘어 시골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 B. 친교

친교는 그리스도의교회의 연합정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친교의 자리는 주일예배 후 교인 간 모임과 그리스도의교회일본전국대회(*Church of Christ All-Japan Convention*, 이하 전국대회)였다. 전국대회는 일본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개교회 선교사와 사역자, 그리고 교인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연합모임이다.<sup>10)</sup> 이 모임은 1927년 미국 북미그리스도인대회(*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를 모델로 한 것으로<sup>11)</sup> 1949년 오사카 지역 6개 그리스도의교회 교회들이 협력하여 처음 시작하였다. 이후 전국대회는 매년 1회, 봄이나 여름에 3-4일간 열렸으며, 장소는 교회들이

8) "Building for Christ," *Tokyo Christian*, January-February 1950, 49-1, 1.

9) "First Church Reopens in Tokyo," *TC*, September-October 1947, 46-5, 1-2; "Missionary Activities In Tokyo," *TC*, September-October 1947, 46-5, 2; "Progress of The Mission Work In Japan," *TC*, January-February 1948, 47-1, 3.

10) "Inspiring Convention In Osaka," *TC*, March-April 1953, 52-2, 2; "All Japan Christian Convention," *TC*, Spring 1963, 62-1, 4; "Serve The Lord With Gladness," *TC*, January 1988, 87-1, 1; "48th Convention in Okinawa," *TC*, April 1997, 95-2, 1.

11) *The Encyclopedia of Stone-Campbell Movement*, ed., by Douglas A. Foster et al. s.v. "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

위치한 오사카와 도쿄 지역이었다.<sup>12)</sup> 프로그램은 예배와 강연과 토론으로 구성되고, 예배의 인도자와 강연의 강사는 외부 인사가 초대되었다.

### C. 교육과 복음전도

제2차 세계대전 전 요츠야선교회의 교육과 복음전도의 주요 수단은 성경공부와 복음전도집회, 그리고 본토인 사역자 양성과정이었다. 세계대전 후 커닝햄선교회는 교육과 복음전도에서 요츠야선교회의 성경공부와 복음전도집회를 계승하고, 본토인 사역자 양성과정으로 전문교육기관인 성서학교를 설립하였다. 또 청년캠프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 1. 성경공부와 복음전도집회

성경공부는 (전쟁 전 요츠야선교회에서처럼) 평신도교육과 복음전도사역의 핵심이었다. 전쟁 후 재건된 그리스도의교회에서는 주일 성경학교와 성경반이 재개되었다. 1947년 3월 나카노(中野) 교회 전 교인의 집에서 주일 성경학교(참석 67명)와 성경반(참석 26명)이 열렸고, 4월에 재개된 세타가야 교회에서는 주일 아침 성경학교(참석 200명 이상)가 열렸다. 동년 9월 와카바 교회에서는 주일 성경반에 영어성경반이 추가되었다.<sup>13)</sup> 1947년 개척된 니시-오기쿠보(西荻窪) 교회는 사무엘 다카타(高田)의 집에서 열린 성경학교, 영어성경반, 일본어 성경연구로 시작되고, 선더스 선교사가 임대한 집에서 개척된 신마치(桜新町) 교회는 어린이 성경학교, 영어성경반으로 시

12) "Inspiring Convention," *TC*, May-June 1949, 48-3, 1; "Christian Convention," July-August 1951, 50-4, 3; "All-Japan Convention," May-June 1952, 51-3, 4; 1952년 도쿄에서 열린 전국대회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 요세 성서대학(San Jose Bible College)의 총장 제섭(W. L. Jessup)이 참석하여 폐회사를 맡았다.

13) "First Church Reopens in Tokyo," *TC*, September-October, 1947, 46-5, 1; "Missionary Activities In Tokyo," *TC*, September-October 1947, 46-5, 2; "Progress of The Mission Work In Japan," *TC*, January-February 1948, 47-1, 3.

작되었다.<sup>14)</sup> 커닝햄 부인은 일본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세 들어 살았던 일본인 노구치(野口)의 집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성경공부반을 2년 동안 인도하였다.<sup>15)</sup> 1950년 1월 9일까지 존재한 13개 교회에서 열린 주일학교 성경반에 참가한 교인 수는 총 1,883명에 달했다.<sup>16)</sup>

세계대전 후 복음전도집회는 미카와시마 교회 등에서 재개되었다.<sup>17)</sup> 일본에서 복음전도집회의 주요 목적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을 복음집회로 초대하는 일이었다. 사람들을 초대하는 데 필요한 홍보에는 표지판, 신문에 전단지 끼우기, 노상에서 패널 전등이나 확성기로 광고하기, 엽서 보내기 등 여러 방법이 사용되었다. 복음전도집회는 대개 주일을 끼고 이어서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집회가 끝나면 새로 온 사람들에게 카드와 연필을 주어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쓰게 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집회에 참가한 후 3개월 혹은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았다.<sup>18)</sup>

## 2. 도쿄성서학교

세계대전 전 요츠야선교회는 본토인 예비사역자의 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적당한 전문교육기관이 없어 선교회가 직접 성경연구반(혹은 학교)을 개설하여 사역자를 양성하였다.<sup>19)</sup> 1905년 일본인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1931년 9월 한국인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개설하고, 1939년 11월 도쿄 제1교회에 일본인 사역자를 양성하는 야간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세계대전 후 미국 성서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입국한 선

14) "Progress of The Mission Work In Japan," *TC*, January-February 1948, 47-1, 3.

15) "Mrs. Cunningham's Friday Class," *TC*, September-October 1949, 48-5, 1.

16) "Building For Christ," *TC*, January-February 1950, 49-1, 1.

17) "Evangelistic Meeting In Mikawashima Church," *TC*, November-December 1950, 49-6, 3.

18) "Evangelical Methods Used in Japan," *TC*, May-June 1952, 51-2, 3.

19) 백종구, "윌리엄 D. 커닝햄의 일본 선교와 요시야선교회: 직접후원선교의 개척," 163-66. "Miscellaneous," *TC*, October 1931, 30-12, 2; "Tokyo Night School for Christian Workers," *TC*, January 1940, 39-2, 4.

교사들은 자신들이 교육받았던 성서대학의 교육과정이 일본 그리스도의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실질적 좋은 수단이라는 확신에서 본토인 예비사역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도쿄성서학교(Tokyo Bible School)를 설립하였다.<sup>20)</sup>

도쿄성서학교는 1948년 4월 10일 세타가야 교회 인근에 임대한 4개의 방에서 학생 20명(주간 8명, 야간 12명)으로 시작했다.<sup>21)</sup> 정규과정 입학생의 연령대는 18-21세로 1946-1948년 그리스도의교회에서 세례를 받거나 기독교로 개종한 일본인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목회자가 되려고 학교에 입학했으며 이 중에는 단순히 성경을 깊게 공부하거나 평신도 전도자가 되려고 입학한 학생들도 있었다.<sup>22)</sup>

도쿄성서학교의 교육목적은 “성경을 주교재와 신앙생활의 유일한 권위”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의교회를 섬길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sup>23)</sup> 교육과목으로는 헬라어, 히브리어, 신약, 복음서, 구약과 신학입문, 사도행전, 목회학, 해석학, 교회사, 환원운동의 역사 등이 제공되었다. 교수진은 3명의 일본인 사역자들과 5명의 선교사들(패튼, 선더스, 심스, 스틸, 스틸 부인)로 구성되었다. 도쿄성서학교의 교육과정은 일본 대학의 교육체계에 맞게 편성되었다.<sup>24)</sup> 전 학기는 3월 말에 끝나고 새 학기는 4월에 시작했다.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입학생은 등록증서, 추천서 3통, 입학의 목적을 기술하여 제출했다.

---

20) *The Encyclopedia of Stone-Campbell Movement*, s.v. "Bible College Movement." 미국 그리스도의교회(유약기)는 20세기 전반기, 특히 1920-1950년에 자유주의신학에 영향을 받은 성서/신학 교육을 대체하는 교육기관으로 성서대학을 설립하였다. 이후 성서대학은 복음전도의 모체로서 해당 지역의 교회 부흥과 개척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했다.

21) "Bible College Opens In April," *TC*, March-April 1948, 47-2, 1.

22) "Interesting Autobiographies," *TC*, November-December 1948, 47-6, 1-3.

23) "Tokyo Mission Bible College Launched," *TC*, May-June 1948, 49-3, 1.

24) "Tokyo Bible Seminary," *TC*, April-June 1954, 53-2, 1.

도쿄성서대학 학생들은 미국 성서대학에서처럼 수학 중에 설교사역을 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복음전도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복음전도집회에 참여하여 교리서를 등사하고 포스터를 그려 사람들에게 돌리고, 노상 집회를 열어 사람들을 복음전도집회로 동원하고, 또 직접 복음전도집회에서 설교를 하기도 했다.<sup>25)</sup> 어떤 학생들은 설교자나 선교사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회중을 지도하고, 다른 학생들은 선교사와 협력하여 설교도 하고, 선교사가 가르치는 성경공부반의 통역을 맡기도 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선교사들의 조사가 되어 선교사들로부터 훈련을 받고 또 지역교회 예배(혹은 기도예배)를 인도하고, 주일학교와 성경반을 가르치고, 기타 다른 봉사를 하였다.<sup>26)</sup> 1951년 일본인 첫 졸업생 스티븐(Stephen) 이지마(飯島) 1명을 시작으로 매년 소수의 졸업생을 배출했다.<sup>27)</sup> 졸업생들은 대부분 지역 그리스도의교회나 도쿄성서학교 교사 혹은 교내 행정 부서에서 사역했다.

### 3. 청년캠프

커닝햄선교회의 첫 청년 캠프는 스티븐이 1948년 YMCA에서 영어수업을 가르친 대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YMCA 캠프장에서 시작되었다.<sup>28)</sup> 동년 여름 일주일 동안 열린 청년캠프에는 16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 89명이 참석하였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반과 청년반의 두 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일정은 아침 6시에 기상하고, 아침예배와 저녁예배, 아침식사를 전후하여 다양한 신학 주제에 대한 특강을 듣고, 점심 후에는 수영, 보트 타기 등 레크레이션, 온천욕을 즐겼다.

25) "Preachers Today And Tomorrow," *TC*, September-October 1949, 48-5, 1-2.

26) "Importance of Training," *TC*, July-August 1950, 49-4, 2.

27) 스티븐(Stephen)은 십스 선교사가 지어준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마사히사(正久)이다. 大樹岸本, April 12, 2020, e-mail.

28) "Christian Youth Service Camp," *TC*, September-October 1948, 47-5, 1-3. YMCA 캠프는 도쿄에서 서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후지산 기슭 야마나(山中) 호수에 위치함.

이 캠프에서 참가자들은 일주간 공동생활을 하며 교리, 친교, 모범적 삶을 배울 수 있었다. 캠프 후 청년 2명이 도쿄성서대학에 진학을 결심했다. YMCA 캠프장의 시설과 주변의 자연경관, 특강과 레크레이션 등은 당시 일본 청년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던 귀한 것으로 청년캠프는 일본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1949년 도쿄의 교회들이 유사한 캠프를 이토(伊東) 해변에서 2일간 진행하고, 1951년 라쿠산소(樂山莊)에서 5주간 진행했다. 특히 라쿠산소 캠프에는 90명 참석에 세례자 17명과 결신자가 8명이 나왔다.<sup>29)</sup>

#### D. 그리스도의교회의 성장

연합군 점령 시기 그리스도의교회의 교세는 교회 밖 일본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독교의 성장 스펙트럼과 일치한다.<sup>30)</sup> 전쟁 전 일본 사회에서 무기력했던 기독교는 연합군 점령 시기 기독교인들의 정치계와 교육계에 진출, 대중매체의 긍정적 시각, 대중의 긍정적 인식 등으로 활기를 되찾고 빠르게 성장하였다.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일본인이 기독교에 기대를 걸고, 성서를 읽으며, 교회에 나가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갔다. 당시 기독교 교인 수는 약 33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이 시기 커닝햄선교회 소속 그리스도의교회 역시 빠르게 성장했다. 1947년부터 교회가 재건되고 개척되어 1950년 1월 9일 당시 교회의 수는 13개에 달했다.<sup>31)</sup> 재건된 교회 중 세타가야 교회(1947년 4월 재건)의 주일예배 평균 참석자 수가 96명, 주일학교 410명, 헌금 228,056엔, 세례자 수

29) "Youth Camp At Ito," September-October 1949, 48-5, 3; "Mission Youth Camp," July-August 1951, 50-4, 3; "Christian Service Camp," September-October 1951, 50-5, 1.

30) 中村敏, 『日本 キリスト教 宣教史』, 281-360, 295, 337.

31) "Building For Christ," TC, January-February 1950, 49-1, 1.

48명에 달했다. 와카바 교회(1947년 9월에 재건)의 주일예배에 평균 참석자 수는 89명, 주일학교 165명, 헌금 115,117엔, 세례자 수 72명이었다. 개척된 교회 중 니시-하치오지(西八王子) 교회(1949년 봄에 개척)의 경우 주일예배 평균 참석자 수는 13명, 주일학교 68명, 헌금 1,833엔, 세례자는 11명이었다. 아비코 교회(1949년 여름에 개척)의 주일예배에는 평균 30명이 참석하고, 주일학교 136명, 헌금 7,260엔, 세례자는 8명에 달했다. 총 교인 수는 1946년 42명에서 1953년 789명으로 증가했다.<sup>32)</sup>

그리스도의교회의 성장은 교인 수의 증가 외에 시설, 특히 교회 건물의 복구와 신축에서도 나타났다. 1947년 선교사들이 입국한 이후 선교비의 많은 부분이 교회 건물에 사용되었다. 그 결과 1953년 현재 전쟁 중 철거나 소실되었던 6개 교회의 건물이 복구되고, 새로 개척한 6개 교회의 건물이 신축되었다. 그리고 선교사 주택 3동이 세워지고, 도쿄성서대학 2층 건물 1개가 신축되었다.<sup>33)</sup>

### III. 그리스도의교회 개교회의 자립(1952-1997)

1953년 봄 커닝햄선교회는 선교회의 재정정책을 수정하여 오는 9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sup>34)</sup> 재정정책을 수정한 목적은 그리스도의교회의 기본 교리는 그대로 유지하되, “개교회의 자립과 신약성경의 가이드 아래 자기통제(self-control)와 방향들(directives)을 설정하는 것”이었다.<sup>35)</sup>

32) TC, November-December 1953, 52-6, 2-3.

33) 위의 기사, 3.

34) "Changes In Policy and Method to Take Place in Cunningham Mission," TC, March-April 1953, 52-2, 1.

35) "Editorial," TC, May-June 1953, 52-3, 2. 기본 교리는 신약성경의 기독교 회복,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절대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충분한 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이었다.

수정한 재정정책 가운데 최대 관심 분야는 개교회의 자립에 맞추어져 있었다.

## A. 선교비의 지원 방식과 개교회의 자립

### 1. 재산의 소유와 관리

제2차 세계대전 전 요츠야선교회는 미국 내 선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선교회였다. 요츠야선교회의 선교기금은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커닝햄에게 전달되고, 선교정책은 커닝햄에 의해 결정되고, 매입한 토지와 건물은 커닝햄의 명의로 되었다. 그리고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의 급료와 경비는 선교회에서 지급되었다. 1936년 커닝햄 사망 후 남긴 개인 재산은 선교사 주택 1채, 영어수업과 축음기판에서 벌어들인 돈, 생명보험금 5,000달러였다. 5,000달러는 커닝햄 부인에게 양도되었고 그녀는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sup>36)</sup> 커닝햄 명의로 되어있던 일본에 있는 교회의 재산 또한 커닝햄 부인에게 양도되었다. 그러나 교회 재산의 경우 커닝햄 부인은 그 양이 개인이 관리하기에 너무 많고 또 재산의 사유화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커닝햄의 친구인 법률가 해스콕(T. O. Hathcock)의 조언을 받아 1937년 2개의 법인을 설립했다.<sup>37)</sup> 하나는 일본에 있는 재산(10여개 토지와 토지 위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그리스도의교회요츠야선교회재단(*Church of Christ Yotsuya Mission Holding Corporation*, 이하 요츠야선교회재단)이고, 다른 것은 미국에 있는 선교기금을 운영하기 위해 세운 그리스도의교회커닝햄선교회법인(*Church of Christ Cunningham Mission, Inc.* 이하 커닝햄선교회법인)이었다.

36) "Mrs. Cunningham Writes," *TC*, January-February 1953, 52-1, 2. 커닝햄 부인은 생명보험금 5,000달러 가운데 2,000달러를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3,000달러 중 일부는 세계대전 중 6개월간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2개월간 여비로 사용하였다.

37) "The Zaidan," *TC*, Summer 1957, 57-1, 2-3.

요츠야선교회재단 이사진은 커닝햄 부인(이사장)과 선교회 소속 그리스도의교회 일본인 목사들로 구성되었다. 이 재단은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세계대전 중 요츠야선교회재단의 이사장이 일본인 목사로 바뀌어 일본 정부에 몰수된 재산은 없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세타 가야 교회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공습으로 불타 없어지고, 메구로 교회 건물은 이익을 남기고 매각되고 이익금은 분배되었다. 전쟁 후 일본에 돌아온 스틸 선교사 부부와 커닝햄 부인은 전쟁 중 이루어진 선교회재단의 재산 관리에 만족하지 못해 이사회를 해체하고 이사진을 재구성하였다. 이사진은 커닝햄 부인(이사장)과 선교사들, 즉 스틸 부부, 선더스 부부, 심스 부부, 패튼, 그리고 일본인 목사 한유 신(羽生眞)이었다. 스틸 부부와 선더스 부부가 귀국한 후 버트레이 부부와 패튼 선교사 부인(Mrs. Betty Patton)으로 대체되었다. 1954년 커닝햄 부인 사망 이후 선교사들이 심스 선교사를 이사장으로 세우고 선교회의 모든 재산을 통제했다.

커닝햄선교회법인은 커닝햄 부인(회장), 해스콕(부회장), 에바 그린(Miss Eva Green), 립스콕(J. E. Libscombe)을 포함하여 6-8명으로 구성되었다.<sup>38)</sup> 이 법인은 사무실을 아틀란타(Atlanta)에 두고 미국에 있는 선교기금을 관리하였다. 커닝햄 사망 후, 선교회의 재정을 맡은 스틸 선교사는 사직 후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모든 기금을 아틀란타 법인으로 보냈고, 법인이 모든 경비(급료와 일반경비 포함)를 지불했다. 커닝햄 부인 역시 (그녀가 선교회의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으로부터 다른 선교사들과 동일한 급료를 받았다. 아틀란타 커닝햄선교회법인은 1957년 남은 기금을 요츠야선교회재단으로 넘기고 해체하기로 결정하여, 이후 요츠야선교회재단이 커닝햄선교회의 모든 재산(미국 기금과 일본의 토지, 건물 등)을 관리하는 합법적인 단일 기구가 되었다.<sup>39)</sup> 요츠야선교회재단의 목적은 “그리스도의교회

38) "THE TOKYO CHRISTIAN," *TC*, July 1946, 45-7, 2; "Judge Hathcock Passes," *TC*, November 1966, 65-3, 4. 커닝햄 부인 사망 후 해스콕이 회장이 되었다.

39) 해체 이유는 두 개의 기구로부터 오는 혼란을 피하고 책임을 한 기구에 전가하기 위

가 크리스천 선교사역과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토지, 건물, 기금과 다른 재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다"<sup>40)</sup> 1957년 당시, 요츠야선교회재단의 재산은 토지 13필지와 (교회들이 점유하고 있는) 교회건물 16개로 시가 10만 달러 상당의 가치였다.

## 2. 선교비의 지원 방식과 개교회의 법인화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었을 때 후원자들이 보내온 모든 기금은 선교회를 통해 혹은 대리인을 통해 미국 아틀란타 커닝햄선교회법인의 '일반기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일반기금'으로부터 모든 경비(선교사들의 월 급여 500불과 경비 등)가 일본으로 보내져 지출되었다. 그러던 중 1953년 커닝햄선교회법인 이사회는 선교회의 재정정책을 수정하였다. 새로운 재정정책은 지역 개교회의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기금'이 사용되는 분야를 제한한다. '일반기금'은 건물 유지비(세금, 보험료 수리비), 요츠야선교회재단의 운영과 재산의 유지, 커닝햄부인의 월 급여를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둘째, 선교사의 선교비 지원 방식으로 직접후원(Direct-Support)체제를 도입한다. 각 선교사는 독립선교사로서 월 급여는 물론 월 급여 외에 다른 경비(여행비, 의료비, 어학공부, 우편료, 개인 장비 등), 자신의 특별한 프로젝트(번역, 출판, 개인적 복음 전파, 기타 다른 일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타인의 현금이나 교회의 지원(생계비 지원, living link support)을 받아야 한다.

셋째, 개교회를 종교법인으로 만든다. 요츠야선교회재단이 보유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자격을 갖춘 장로들이 세워지고 재정이 자립되는 개교회에 양도해야 한다. 개교회가 성경교리와 그리스도의교회의 원칙(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을 알고 믿고, 설교자를 지원할 수 있고, 재산을 보존할 수 있으며, 교회의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요츠야선교회재단은 해당 개

---

한 것이었다.

40) "The Zaidan," *TC*, Summer 1957, 57-1, 2.

교회와 관련된 재산증서를 개교회에 양도하고, 이 교회는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종교법인'으로 등록한다. 정부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고 승인되어 법인이 되는 교회는 면세의 혜택을 받고 이사들과 회중에 의해 등록된 규정에 의해 운영된다.

넷째, 도쿄성서학교를 독립시킨다. 설립 당시 커닝햄선교회의 부속 교육시설이었던 도쿄성서학교는 독립된 교육기관이 되며, 학교 관련 재산은 모두 학교로 양도한다. 또 새로운 다른 대학 건물이 세워지면, 남은 재산은 다른 대학 건물의 건축에 사용된다. 도쿄성서학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후원금을,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기부금을 선교사를 통해 직접 학교로 보내야 한다.

1953년 봄에 내린 이런 결정들은 1953년 9월 이후부터 현실화되었다. 1953년 9월 후원금을 받아 전달할 각 선교사의 대리인이 결정되었다. 버트레이 선교사의 대리인은 호머 앤더슨 부인(Mrs. Homer Anderson), 패튼 선교사의 대리인은 레이 아마트롱 부부(Mr. or Mrs. Ray Armatrong), 심스 선교사의 대리인은 그의 아버지 앨프레드 심스(Alfred E. Sims)로 확정되었다. 커닝햄 부인의 대리인은 전과 동일하게 그린(Miss Eva Green)이었다. 그린은 커닝햄 부인의 급료 외에 '일반기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sup>41)</sup> 1953년 9월 이후 특정 선교사와 그의 사역에 관심이 있는 개인과 교회는 후원금을 일본에 있는 선교사에게 직접 혹은 선교사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보냈고, 각 선교사는 후원금을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전달받았다.

개교회의 종교법인화 결정에 따라 개교회들이 하나씩 독립해 나갔다. 세계대전 이후 재건된 교회 중 첫 번째로 나카노 교회가 1951년경에, 다음으로 미카와시마 교회가 1960년에, 그다음으로 세타가야 교회가 1962년 4월에, 요초마치 교회가 1962년 말에 종교법인으로 자립하였다. 또 전쟁 이후 개척된 교회 중 미나토 교회는 1957년에, 아라카와 교회는 1966년

41) THE TOKYO CHRISTIAN," TC, September-October 1953, 52-5, 2.

에, 메지로다이(めじろ台) 교회는 1970년경에 종교법인으로 자립하였다.<sup>42)</sup> 특히 메지로다이 교회는 1973년 종교법인이 된 교회 중 선교사의 급료를 지불할 수 있는 첫 교회가 되었다.<sup>43)</sup>

## B. 친교

교인 간 친교를 위하여 주일예배 후에 있는 친교모임에 부활절과 크리스마스과 같은 특별 절기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sup>44)</sup> 일본 전국의 선교사와 사역자, 교인들이 모이는 전국대회는 매년 계속 열렸다.<sup>45)</sup> 전국대회의 개최 시기는 대개 3-4월 혹은 7-8월이었고, 장소는 교회들이 새로 개척된 지역으로 가고시마(鹿児島), 큐슈, 나고야, 홋카이도, 고치(高知) 등으로 확대되었다. 기본 프로그램인 예배와 강연과 토론에 1968년부터 교인들의 신앙간증이 추가되었다.<sup>46)</sup> 이 대회는 일본 내 그리스도의교회(유약기) 선교사와 사역자, 그리고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그리스도의교회(무약기) 선교사와 타국에서 사역하다 일본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에게도 열려 있었다. 참석자는 적게는 70여 명(1964년 나고야 대회) 많게는 400명(1984년 요코하마/横浜 대회)을 넘었다. 주제는 주최하는 지역 교회 준비위원들이 결정하는 데 “모두를 그리스도로”(1954년 가고시마 현, 카노야/鹿屋 대회) “연합의 정신”(1959년 나고야 대회) “전국대회의 목적과 의미”(1964년 나고야 대회)

42) "Minato Church Becomes Independent," *TC*, Winter 1957, 56-3, 1; "Kamiochiai Church," *TC*, Fourth Quarter 1978, 77-4, 2.

43) "Mejirodai Church Paying The Preacher," *TC*, July 1973, 72-3, 2.

44) "Sakurayama Christmas Program," *TC*, January 1966, 64-4, 4; "Easter Meeting," *TC*, April 1966, 65-1, 2.

45) "Tenth Annual All Japan Convention," *TC*, Spring 1959, 58-4, 4; "All Japan Convention," *TC*, Summer 1968, 63-1, 1; "Convention in Nagoya," *TC*, July 1970, 69-3, 4.

46) "The 20th All-Japan Convention," *TC*, April 1969, 68-2, 1, 3; "22nd Japanese Convention," *TC*, July 1971, 70-3, 1; "1973 Convention," *TC*, July 1973, 72-3, 1.

등으로 매회 달랐다. 전국대회를 통해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의교회 교인들 간의 친교와 연합이 강화되고, 형제애와 정체성이 형성되어 갔다.<sup>47)</sup>

친교모임에 다섯째주일동원(Fifth Sunday Rally)이 추가되었다. 5째주 일동원은 지역 내 개교회들간 친목, 복음전도, 성장을 격려하기 위한 모임이다.<sup>48)</sup> 이 모임은 미국 그리스도의교회 개교회 간 연합모임을 모델로 한 것으로, 1980년 초 일본 그리스도의교회에 의해 도입되었다. 다섯째주일 동원은 특정 지역 내 개교회들의 교인들이 5째 주일이 끼어있는 달 다섯째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친교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에 참석하는 교인들은 아침 일찍, 모임을 개최하는 교회로 가서, 주일학교를 준비하며 봉사하고, 오전 예배를 드리고, 공동으로 점심을 나눈 후 오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한 일본인 목사에 의하면 이 모임은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 다투는 것에 대해 듣고, 설교자료를 발견하는데 가장 좋은 자리이다. 이 모임은 불신자 혹은 기독교에 부정적인 가정의 젊은이들을 초대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사랑, 가족적 분위기를 제공한다.

언급한 친교모임 외에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모이는 연례모임이 있었다. 연례모임은 1953년 처음 시작된 이후 매년 계속되었다. 이 모임은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의교회 선교사와 가족들 전체(그리스도의교회 오사카선교회 소속 선교사들과 큐슈선교회 소속 선교사들 포함)가 모이는 연례행사였다. 이 모임에는 때로는 한국, 태국, 인도, 대만, 호주 등 타국에서 사역하다 일본을 방문하는 그리스도의교회(유악기)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의교회(무악기) 선교사와 가족도 참석하였다.<sup>49)</sup> 이 모임이 열리는 기간은 대개 2일간이었고 전국대회에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모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47) "22nd Japanese Convention," *TC*, July 1971, 70-3, 1.

48) "Fifth Sunday Rally at Mejirodai," *TC*, April 1984, 83-2, 1.

49) "Tenth Annual All Japanese Convention," *TC*, Spring 1959, 58-4, 4; "Annual Convention At Agami," *TC*, July 1971, 70-3, 1.

날 별도의 장소에서 모이기도 했다.<sup>50)</sup> 이 모임은 친교와 선교정보 교환을 위한 것으로 타 교단의 연례회의와 비슷한 기능을 하였다.

### C. 교육과 복음전도

#### 1. 성경공부와 복음전도

세계대전 후 일본 그리스도의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실질적 좋은 수단이 라는 확신에서 설립한 도쿄성서학교는 첫 한두 해 이후부터 신입생 모집이 어려웠다.<sup>51)</sup> 도쿄성서학교는 1958년 3월 3일 졸업식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sup>52)</sup> 도쿄성서학교 폐교 후 그리스도의교회 사역을 원하는 예비사역자들은 오사카성서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sup>53)</sup>

연합군정 종료 후에도 성경공부와 복음전도집회는 계속되었다. 성경공부는 그리스도의교회 평신도 교육을 주도하였다.<sup>54)</sup> 성경반은 대개 주일날 어린이,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지만, 때로는 성인들을 위

50) "Missionary Convention," *TC*, November 1970, 70-4, 2. 예를 들면 효고(兵庫)현에 소재한 타키노(滝野)보건센터.

51) 도쿄성서대학의 상황에 대해서는 *TC*의 "Faculty and Student Body of the Tokyo Bible Seminary," May-June 1951, 50-3, 3; "Seminary News," Summer 1955, 54-2, 1, 4; "Seminary News," Spring 1956, 55-4, 1; "Seminary News," Summer 1956, 56-1, 1-3; "Seminary News," Fall 1956, 56-2, 1-2; "Seminary News," Winter 1957, 56-3, 1-2.

52) "Statement On The Closing Of Tokyo Bible Seminary," *TC*, Spring 1958, 57-4, 1-3; "Akada To Osaka Seminary," *TC*, Summer 1961, 60-2&3, 1-2. 폐교 당시 학교의 전 재학생은 4학년 학생 3명, 3학년 2명, 2학년 1명으로 총 6명이었다.

53) 오사카성서학교는 1937년 4월 해럴드 콜(Harold Cole) 선교사에 의해 아사히(朝日)교회 예배당에서 2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었다. 동 신학교는 1941년 5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중단되었다가 1947년 콜 선교사가 일본에 돌아온 다음 해 전쟁 전 소유한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교회당을 건축하고 신학교의 활동을 재개하였다.

大阪聖書学院, "沿革," [https://church.ne.jp/obs/\[2020.4.26\]](https://church.ne.jp/obs/[2020.4.26])

54) "Our Thirtieth Anniversary," *TC*, November-December 1950, 49-6, 1; "Sunday Morning Bible Class," *TC*, Spring 1960, 59-2, 2.

해 주중에도 개설되었다.<sup>55)</sup> 버트레이 부인(Mrs. Mabel Buttray)은 커닝햄 부인의 사망 후 요츠야 교회에서 커닝햄 부인의 주중 저녁 성경반을 인도했다. 심스 부인(Mrs. Lois Sims)은 1950-1960년대 나카노에 거주할 때 주중 오전 부인성경반을 시작하여 16년 동안 인도하였고, 이후 1970년대 메르디아이에서 주중 아침에 메르디아이 교회 신자의 집에서 정규 성경모임을 가졌다.

선교사들은 일본 젊은이들과 접촉하기 위해 교회에서 영어성경반을 개설하기도 하고 YMCA 등에 개설된 영어성경반을 가르치기도 했다.<sup>56)</sup> 버트레이 부인은 카미오치아이에서 1960년 주일 성인영어성경반과 소녀영어성경반을 시작하고, 토요일 오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영어성경반을 개설했다.<sup>57)</sup> 패튼은 1963년 YMCA에서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영어성경을 가르쳤다.<sup>58)</sup>

선교사들은 영어회화반을 일본인에게 접근하여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더없이 좋은 개인전도의 수단으로 여기고 교회, 교인의 집, YMCA 등에서 영어회화반을 가르쳤다.<sup>59)</sup> 버트레이 부인은 1958년, 패튼은 1963년, YMCA에서 영어회화를 가르치고, 패튼은 사쿠라야마 교회에서 월, 화, 수요일 저녁에 영어를 가르쳤다.<sup>60)</sup> 심스 부인은 매주 금요일 오전 이웃 주부들을 대상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쳤다.<sup>61)</sup> 패튼 선교사에

55) "Sunday Bible Class," *TC*, Summer 1960, 59-3, 2; "Sakurayama Church," *TC*, Fall 1960, 59-4, 2; "Yachiodai," *TC*, April 1975, 74-2, 4; "Lois Sims and Her Ladies' Group," Third Quarter 1977, 76-3, 3.

56) "Youth Meeting," *TC*, Fall 1960, 59-4, 1.

57) "Sunday Morning Bible Class," *TC*, Spring 1960, 59-2, 1-2; "Saturday Bible Class," *TC*, Summer 1960, 59-3, 2.

58) "English Teaching At YMCA," *TC*, Spring 1963, 62-1, 4.

59) "Teaching English," *TC*, Winter 1958, 57-3; "English Teaching At YMCA," *TC*, Spring 1963, 62-1, 4.

60) "English Classes," *TC*, May 1975, 73-2, 4.

61) "Lois Sims and Her Ladies' Group," *TC*, Third Quarter 1977, 76-3, 3.

의하면, 영어를 가르치는 선교사는 영어를 가르치지 않은 선교사보다 “[일 본인 학생들에게 더 많은 접근을 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 “지속적인 접촉으로 학생들을 교회모임에 초대할 무한한 기회,” 그리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혹은 학교에 오고 갈 때 학생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갖고 그들을 알게 된다.<sup>62)</sup>

선교사들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새로운 성경교육프로그램으로 방학성경학교(Vacation Bible School)를 도입했다.<sup>63)</sup> 동 프로그램은, 심스 부인이 1957년 6월 도쿄 미국채플센터(U.S. Chapel Center)에서 실시한 방학성경학교에 갔다가 얻은 아이디어로, 방학 동안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경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성경학교는 1957년 도입 이후 매년 10여 명 내외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여러 개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방학성경학교는 어린이들을 교회 밖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나가 2-3일 동안 성경 이야기, 수공예, 찬송 등을 집중으로 교육하였다.

전쟁 후 재개된 복음전도집회는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미카와시마 교회, 카미오치아이 교회, 사쿠라야마 교회, 나카노 교회 등 여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열렸다. 전도집회는 짧게는 2-3일 길게는 2주 동안 실시되었다. 수십 명에 달하는 참석자의 반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이중에서 결신자와 세례자가 나왔다.<sup>64)</sup> 특히 1968년에는 극동지역(한국, 필

62) "English Teaching At YMCA," *TC*, Spring 1963, 62-1, 4.

63) "Nakano Daily Vacation Bible School," *TC*, Summer 1957, 57-1, 3. Vacation Bible School," *TC*, Fall 1964, 63-2, 4; "Vacation Bible School," *TC*, November 1990, 89-4, 3.

64)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복음집회에 대하여 *TC*의 "Evangelistic Meeting in Mikawashima," Fall 1955, 55-2, 2; "Summer Activities," 1956 Summer 56-1, 1-2; "Winter Evangelistic Meetings in Hokkaido," Spring 1959, 58-4, 2; "Evangelistic Meeting," Spring 1963, 62-1, 3;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January 1966, 64-4, 1.

1; "Evangelistic Meeting," July 1968, 67-3, 1; "Meetings at Sakurayama and Arakawa," 1967 April 16-2, 3; "News Notes," January 1969, 68-1, 3. 1965년 10월

리핀, 대만, 오키나와, 남부 일본)의 전도 투어 중에 도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원하는 미주리(Missouri)의 전도자 조 가먼(Joe Garman)을 초대하여, 카미오치아이 교회에서 4월 9일부터 4일간 “그리스도의교회 도쿄 크루세이드”(Churches of Christ, Tokyo Crusade)라는 이름으로 대중전도집회를 가졌다.<sup>65)</sup> 또 1960년대 후반부터는 새로운 전도매체로 미국에서 제작된 예수영화가 전도집회에서 상영되었다.<sup>66)</sup>

복음전도집회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가서도 여러 교회에서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참가자가 줄어들고 효력이 약화되었다.<sup>67)</sup> 사쿠라야마 교회와 아라카와 교회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집회를 열었으나 참석이 저조하였고, 참석자가 있었어도 결신자는 거의 없었다. 심스 선교사는 당시의 복음집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부분 일본 교회에서 매년 가을 3일간 열리는 복음집회는 유행에 뒤쳐져있다. 일반적으로 참석자 수는 적고, 가가호호 전단지 전달 혹은 철도역에서 하차하는 사람들에게 뿌리는 광고지의 결과 찾아오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다. 초대에 대한 반응은 거의 없다.”<sup>68)</sup>

---

에 7일간 카미오치아이 교회에서 열린 전도집회에는 평균 25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16명이 기독교를 모르는 새로운 참석자였고 2명이 세례를 받았다. 1968년 10월 5일간 이세하라(伊勢原)에서 열린 전도집회에는 총 62명이 참석했다.

65) "United Evangelistic Campaign," *TC*, April 1968, 67-2, 3.

66) "Film Library Developing," *TC*, July 1971, 70-3, 3.

67) 1970년대와 1980년대 복음집회에 대하여 *TC*의 "News Around The Churches," January 1972, 71-1, 2; "Sakurayama Evangelistic Meeting," May 1973, 72-2, 4; "Patton News," July 1973, 72-3, 2; "Arakawa Evangelistic Meeting," October 1973, 72-4, 3; "Month of Evangelistic Emphasis," First Quarter 1980, 79-1, 2; "Evangelistic Meeting At Mejirodai," Fourth Quarter 1981, 80-4, 1; "Evangelistic Meeting At Mejirodai," January 1984, 83-1, 4; "Evangelistic Meetings," November 1991, 90-4, 4.

68) "Evangelistic Meeting At Mejirodai," *TC*, January 1984, 83-1, 4.

## 2. 청년캠프와 성서캠프

기존의 청년캠프는 계속되었다. 1954년 가루이자와(軽井沢)에서 열린 청년캠프에는 32명이 참가하여 2주 동안 진행되었다. 이 캠프에서 결신자는 없었다. 그러나 캠프는 기존 신자들의 “신앙을 강하게 하고 소망을 견고하게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sup>69)</sup> 이후 청년캠프는 모토수(本栖) 호수 캠프(1956년, 1주간)와 YWCA 피서지(1957년 3일간)에서 진행되었다. 1960년 대부터 모토수가 커닝햄선교회의 전용 캠프장이 되고, 프로그램은 미국의 청년 캠프를 따라 성서드라마의 밤, 재능의 밤, 캠프파이어, 분반 편성 등이 포함되었다. 이 시기 캠프참가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참가자 중 다수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로 이들이 캠프를 통해 결신자와 세례자가 되었다. 1962년 1주간 진행되는 캠프에 참가한 86명 중 다수가 불신자였는데 이 중 5명이 결신하고 6명이 세례를 받았다.<sup>70)</sup> 1963년부터 열리는 캠프에서는 2주간 총인원 100명 이상이 참가하고 5명이 세례를 받았다.<sup>71)</sup> 캠프는 일본인의 마음과 관심에 동지를 틀었고,<sup>72)</sup>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독교인의 생활을 보여주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최상의 기회가 되고 있었다.

청년캠프가 복음전도의 정규 행사로 정착되면서 커닝햄선교회는 자체 캠프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1974년 나카노 현 신수(信州)에 캠프장 토지를 매입하고 다음 해 초 기금을 모금하여, 1978년 12월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였다.<sup>73)</sup> 1980년 257명(대부분 불신자)의 참석으로 첫 성서캠프를 개최한 이후, 참가 대상과 연령층은 다양해지고 참가자는 증가하였다. 캠프

69) "Youth Camp," *TC*, September 1954, 53-3, 4.

70) "Lake Motosu Camp," *TC*, Summer 1962 61-3, 1.

71) "Facts About Motosu Camp for 1963," *TC*, Summer 1963 62-2, 2.

72) "Motosu Christian Camp-1965," *TC*, November 1965, 64-3, 1.

73) "Motosu Christian Camp," *TC*, November 1974, 73-4, 1; "Kamiochiai Property Sold," *TC*, First Quarter 1978, 77-1, 1; "Buttray News," *TC*, First Quarter 1980, 79-1, 1; "Yokosuka News," *TC*, First Quarter 1981, 80-1, 1.

의 목적은 처음에 불신자의 전도에 있었으나 몇 년 후에 구도자의 개종, 교인의 영적 성장, 그리스도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로 확대되었다.<sup>74)</sup> 캠프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특성과 시기별로 구분하여 봄캠프(3월 하순), 성인캠프(5월 초순), 봉사캠프(7월 중순), 여름캠프(8월), 장년캠프(9월 중순)로 진행되었다. 매년 캠프 시즌이 마감되면 자문위원회를 열어 그해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신년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였다.<sup>75)</sup> 캠프의 총 관리는 처음 몇 년 동안 선교사가 맡았으나 1984년부터 오사카에서 목회하던 일본인 타나리 사토루(谷成梧)가 맡았다.<sup>76)</sup> 1980년 시작한 캠프는 1970-80년대 복음전도집회가 실효성을 잃어가면서 기존 복음전도집회보다 더 많은 결신자와 세례자를 약속하는 강력한 복음전도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 D. 그리스도의교회의 성장

연합군 점령이 종료된 후 10년 동안 일본 기독교의 교세는 교회 밖의 변화, 특히 한국 전쟁으로 인한 경제 특수와 명목 교인들의 교회 이탈 등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1950년 30만 명에 달하던 기독교인의 수가 1955년 12만 7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1960-70년대 교회 밖 상황 역시 기독교에 유리하지 않았다. 일본은 1967년 세계경제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1970년대 전국 대학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나 학원과 사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반체제운동이 일어났다. 한편 기독교계에서는 복음주의파 교회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균형 있게 제시한 로잔언약이

74) "Pattons' News, Spring Camp," *TC*, April 1986, 85-2, 2.

75) "Pattons' News, Camp Counsellors' Meeting," *TC*, January 1987, 86-1, 3; "News Bits, Camp Schedule for 1988," November 1987, 86-4, 2.

76) "Pattons' News, Camp," *TC*, January 1984, 83-1, 1; "Taninari Family Leaves Shinsu Camp," April 1997, 95-2, 3. 타나리리는 1980년부터 캠프사역에 참여한 이후 1984년부터 총관리를 맡았으며 1997년 3월 캠프사역을 사임했다.

발표되었다.<sup>77)</sup> 이 시기 전통 기독교(일본 기독교협의회회계 혹은 에큐메니컬계)의 교세는 감소하고 대신 복음주의파 교회들의 대중전도활동(대규모 대중전도집회)으로 구도자와 결신자가 늘어났다. 연합군 점령의 종료 후 감소했던 기독교 교세는 1965년부터 점차 증가 추세로 들어섰고,<sup>78)</sup> 1990년에는 기독교 교인 20만 5천 명, 평균 예배 출석자 수는 6만 800명을 기록했다.

커닝햄선교회 그리스도의교회는 1950년대 일본 경제의 부흥, 민족주의와 전통종교의 부활 등으로 교세가 급감하였다. 그리고 1958년 도쿄성서대학이 신입생 모집에 실패하여 문을 닫았다. 그리스도의교회 교세는 1960년대 후반에 들어가 기존 성경공부와 복음전도집회를 통해 구도자와 결신자를 내면서 조금 나아졌다. 1970-80년대 이후 복음전도집회는 교세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으나 새롭게 시작된 청년캠프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며 특히 1980년에 시작한 신수 성서캠프는 학생과 청년 불신자의 전도에 효과가 있었다.

1997년 현재 커닝햄선교회와 역사적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교회에는 24개 교회(일본인 교회 23개와 한국인 교회 1개)와 성서캠프 1개가 있었다.<sup>79)</sup> 총 교인의 수는 580-810명이었다. 교인 수별로 개교회를 보면 10명 이하의 교회가 3개, 10-50명 이하의 교회가 19개, 80-100명 이하의 교회가 2개였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24명 가운데는 현지인 사역자가 19명(일본인 18명, 한국인 1명), 선교사가 5명이고, 출신학교별로 보면 도쿄성서학교가 8명, 오사카성서신학교가 7명, 미국성서대학 출신 선교사가 5명, 타교단 대학 출신이 4명이었다. 교회의 자치를 훈련받은 현지인 전문사역

77) 中村敏, 『日本 キリスト教 宣敎史』, 320-22, 325, 327, 331. 로잔언약은 스위스에서 1974년 6월 16-25일 150개국에서 온 3,000여 명의 복음주의 선교지도자들이 합의하거나 서명하여 발표한 문서로 '복음주의신앙고백서'로 알려짐.

78) 1965년 교인 수는 19만 7천 명이었다.

79) TC, July 1997, 95-3, 2. 1997년 현재 카미오치아이 그리스도의교회와 신수성서캠프에는 사역자가 없고, 마치다 그리스도의교회에는 선교사 1명과 일본인 사역자(부목사) 1명이 있었다.

자들이 교회를 치리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1997년 현재 그리스도의교회의 자치 정도는 80%에 달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그리스도의교회(유악기) 커닝햄선교회의 직접후원선교가 일본에 그리스도의교회를 어떻게 정착시켰는지를 보여준다. 연합군 점령 시기 커닝햄선교회 선교사들은 요츠야선교회의 선교정책을 계승하면서 그리스도의교회 개교회의 재건과 개척에 집중하였다. 또 개교회 교인들의 예배와 친교를 위해 주일모임, 전국 개교회들의 친교를 위해 전국대회를 개최하였다. 또 성경공부와 복음전도집회로 교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일본인 예비사역자 양성 전문기관으로 도쿄성서학교를 설립했다. 이 시기 그리스도의교회는 기독교에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와 선교활동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였다.

연합군 점령의 종료 이후 교회 밖 일본 사회의 변화(경제적 호황, 민족주의, 전통종교의 부흥)로 그리스도의교회 교세는 전 시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다. 한편 커닝햄선교회 선교사들은 기존 재정정책을 일부 수정하여 직접후원선교의 체제를 보완하였다. 선교사들은 각각 후원받은 선교기금으로 선교사역을 수행하고, 커닝햄선교회를 독립선교사들의 협력체로 재구성하여, 선교회 재산(미국에 있는 선교기금과 일본에 있는 토지와 건물)의 사용과 선교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었다. 선교회 재산은 오로지 그리스도의교회 개교회들을 지원하여, 그리스도의교회 개교회들이 선교회로부터 독립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면세 종교법인으로 등록하여 자립하게 했다.

이 시기 선교사들은 예배와 친교의 수단으로 주일모임과 절기 특별 프로그램, 전국대회 외에 지역 개교회 간 친교를 위해 5째주일동원 프로그램

을 도입하였다. 또 복음전도의 수단으로 일본어 성경반 외에 영어회화반, 영어성경반 등을 운영하고, 복음전도집회를 계속하였으며, 일본인 학생과 청년, 그리고 성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성서캠프를 운영하였다. 선교사들의 전도열과 다양한 선교프로그램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일본 그리스도의교회의 성장을 이끌어냈다.

본 연구는 연합군 점령 시기 그리스도의교회 커닝햄선교회 선교사들이 수행한 교회의 재건과 개척, 친교(주일모임과 전국대회), 교육과 복음전도(성경공부-복음전도집회), 그리고 연합군 점령 종료 후 선교사들이 구축한 직접후원선교체제(생계비 지원), 5째주일동원, 청년/성서캠프 등 프로그램이 외래 종교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일본 땅에 그리스도의교회(유약기)를 성장시키고 정착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up>80)</sup> 현재 일본에는 커닝햄선교회와 역사적으로 연관된 교회들이 80여 개에 달한다. 이 교회들은 모두 자립하고 자치하는 교회들이지만 대부분 소규모 교회들로 담임 사역자는 목회와 교회 밖의 일을 병행하고 있다. 그리스도의교회(유약기)는 일본 기독교 내에서 극히 소수 그룹의 교회이지만 신학적 정체성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sup>81)</sup> 

80) 中村敏, “한·일 교회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 선교협력을 모색하며,” 『和 Mission』 1 (2019): 18-31, 사토시는 기독교의 정체 이유를 다음 4가지로 들고 있다. ① 기독교 수용층이 소수의 지식층 ② 흥행하는 다신교의 신 개념 ③ 천황을 최고 통치자로 보는 국가주의 ④ 일본인의 가치체계와 행동기준

81) 이 교회들은 교단에 속하지 않고, 개교회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매년 전국대회를 개최하며, 캠프 3개(신성서캠프 포함)를 운영하고 있다. D. Newell Williams, Douglas A. Foster, and Paul M. Blowers, ed., *The Stone-Campbell Movement: A Global History*, 270; World Convention, “RESOURCES: Japan,” [https://www.worldconvention.org/resources/profiles/japan/\[2020.5.26\]](https://www.worldconvention.org/resources/profiles/japan/[2020.5.26])

참고 문헌

Filbeck David. *The First Fifty Years: A Brief History of The Direct-Support Missionary Movement*.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mpany, 1980.

Williams D. Newell, Douglas A. Foster, and Paul M. Blowers, ed. *The Stone-Campbell Movement: A Global History*. St. Louis: Chalice Press, 2013.

中村敏 『日本 キリシト教 宣敎史』, 박창수 역. 『일본 기독교 선교의 역사』, 서울: 홍성사, 2016.

\_\_\_\_\_. “한·일 교회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 선교협력을 모색하며.” 『和 Mission』 1 (2019): 18-31.

백종구. “윌리엄 D. 커닝햄의 일본 선교와 요시아선교회: 직접후원선교의 개척.” 『선교와 신학』 39 (2016): 153-177.

*Tokyo Christian*. November 1901 - November 1997

大阪聖書学院. “沿革.” <https://church.ne.jp/obs/>[2020. 4. 26]

World Convention. "RESOURCES: Japan." <https://www.worldconvention.org/resources/profiles/japan/>[2020. 5. 26]

■ Abstract ■

**Church of Christ Cunningham Mission's  
Direct-Support Mission: From Reconstruction to  
Self-Support of Church of Christ(1945-1997)**


**Chong Ku Paek**

Yotsuya Mission, which was managed by William D. Cunningham(1864-1936), the independent missionary of the Church of Christ in the USA, has been known as the model of the Direct-Support Mission(or Faith Mission). The missionary work of Yotsuya Mission can be studied in terms of two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World War II. This study aims to reconstruct the history of the missionary work of Yotsuya Mission(which was called as Cunningham Mission after the death of Cunningham in 1936) in the latter period. Considering the differences in the situation of Japanese society and the finance policy of Cunningham Mission, this study will describe the history of the missionary work of the Cunningham Mission in the two successive periods, the period of the occupation of the United Army(1947-1952) and the period from the end of the occupation of the United Army to the resignation

---

**Chong Ku Paek** graduated from Leiden University in the Netherlands(B.A., Th.M., Ph.D.). He taught at Seoul Christian University(2007-2019).

of the final staff missionary, Harold Sims(1953-1997).

This study shows the following. The pro-Christian attitude of the Japanese society and the missionary work, namely the reconstruction and plantation of churches, Sunday Worship and Service, Bible Study and Evangelistic meeting had contributed to the fast growth of the conservative group of Church of Christ(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 during the occupation of the United Army(1947-1952). Though the changes in Japanese society after the end of the occupation were not favorable to Christianity, the introduction of the new thorough system of direct-support mission(living-link support of each missionary and the incorporation of churches), the evangelism and the plantation of new churches through Bible Study and Evangelistic meeting, Youth or Bible Camp, and the fellowship through Sunday Worship and Service, Fifth Sunday Rally and All Japan Convention had led to the gradual growth,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hurch of Christ in the Japanese soil where alien religions were very hard to take root. 

### Key Words

Direct-Support Mission, Self-Support of Church, Christian Fellowship, Evangelism, Church Growth